

고즈넉한 가을 山寺서 음악에 빠져보자

■ 광주·전남지역 사찰 풍성한 음악향연

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가을 산사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광주·전남지역 사찰들이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산사음악회'를 잇따라 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영성음악제인 '화엄제 2008'이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다. 영성음악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을 말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화엄제'는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이 지리산 화엄사에 모여 음악의 향연을 펼치는 자리로, 콘서트나 페스티벌 같은 일반적인 공연이 아닌 '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다.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터키의 정상급 가수이자 연주자인 사드레틴 외즈치미와 아흐멧 사한을 비롯해 마니쉬 비아스, 데바 탐마오 등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이 참석한다. 또 별신곡, 판소리 강요무형문화재인 김동인, 김승태, 강권순 등 전통음악가는 물론 작곡가 정재일, 박지음, 원일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가들이 함께한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는 아가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 1일 오후 1시 '쌍계루의 추야몽(秋夜夢) 산사음악회'를 연다. 3회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백양사의 명소인 쌍계루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망부석'을 부른 김태근과 '직녀에게' 등으로 유명한 김원중 등이 출연한다.

해남 미황사는 오는 18일 오후 6시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작은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20여 년의 노력 끝에 대웅보전 등 20여 채의 건물을 복원, 개·보수한 것을 기념하는 과불재와 함께 열리며, 해남 주민들이 들노래와 강강술래를 비롯해 소리꾼 이병재의 판소리 '수궁가', 스폰밴드, 풍물패 미황사 군고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광주 원각사는 11일 오후 6시 잔디마당에서 '7080 음악회'를 개최한다. 원각사어린이회의 가야금 연주를 시작으로 소리심 사람들의 포크송 공연, 우리문화연구원 소리노리의 모듬북 공연이 펼쳐진다.

'산사음악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무등산 풍경소리'의 66번째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중심사 문화마당에서 펼쳐진다. '춤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홍순관, 서양화가 한희원, 놀이매 신명이 함께한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



지난해 10월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제2회 화엄제'에서 스님과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화엄사 제공)

임'에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매달 마련하고 있는 문화행사다.

강진 고성사에서는 11일 오후 7시 '자연 그대로가 악기이자 음악이다'를 주제로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연다. 자동차 휠 등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노리단'의 생태뮤직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산사음악회 주요일정

사찰	행사명	기간	문의
구례 화엄사	화엄제 2008	25일 오후2시30분	061-782-7600
장성 백양사	쌍계루의 추야몽	11월 1일 오후1시	061-392-7502
해남 미황사	작은 음악회	18일 오후6시	061-533-3521
광주 원각사	7080 음악회	11일 오후6시	062-223-3168
광주 중심사	무등산 풍경소리	18일 오후7시	062-226-0826
강진 무위사	강진문화회관잔치	17일 오후7시	061-432-4974
강진 고성사	고성사 산사음악회	11일 오후7시	061-434-3710

공연·전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

광주 월광교회 16~17일 이틀간

광주 월광교회(담임목사 김유수)는 오는 16~17일 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를 연다.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존에 먹거리 행사 위주로 진행됐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이기 인디밴드 '홀리건'과 맘마미아 주연 가수인 이재영의 공연을 비롯해 사물놀이 공연,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도 펼쳐진다. 월광문화센터에서는 폼아트, 퀼트, 클레이아트, 예술 도자기 등이 전시되며, 사람의 메시지를 써주기, 문패 써주기, 핸드 페인팅으로 옷이나 손수건에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도 준비됐다.

월광도서관에서는 '도서관화 장터'가 열린다. 이번 바자에서는 90여 종의 농산물 코너를 통해 생산자와 직거래한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광주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지난해 열린 광주월광교회 '사랑의 바자'.

담은 각종 김치류 등도 맛볼 수 있다. 이밖에 의류, 생활용품 코너도 운영된다.

김유수 담임목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바자를 마련했다"며 "가족들과 어울려 문화행사도 구경하고 바자에 참여해 작은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75-0400. /이문미기자 emlee@

무안 해운사 청화스님 부도탑 회향식

무안 해운사 사적비 준공식 및 청화스님 부도탑 회향식이 7일 불교계 인사와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원명스님의 신중작법(神衆作法)에 이어 청화스님의 법문, 금산스님의 법문, 축사, 부도탑 제막,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출신인 청화스님은 1947년 장성 백양사 운문암에서 출가 득도했으며, 무안 해운사, 두륜산 상원암 등에서 구도를 수행했다. 지난 2003년 11월 12일 극성 성류사에서 열반했다.

청화스님은 불교사상은 물론 현대 철학과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 사상의 회통과 일원화를 주장한 원통 불교의 주장자로 유명하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7일 무안 해운사에서 열린 해운사 사적비 준공식 및 청화 스님 부도탑 회향식. (무안군청 제공)

종교칼럼



박병주

해마다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자살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1996년 가수 김광석,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 2007년 가수 유니와 텔런트 정다빈, 올해는 텔런트 안재환에 이어, 국민 여배우 최진실, 트레스젠더 연예인 장채연, 모델 겸 배우인 김지후가 각각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부를 만큼 누구에게나 흔하게 찾아오는 정신장애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우울

증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이, 청소년은 3명 중 1명이 우울증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나 앞선 수준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세상만사가 싫고 재미도 없으며 사는 것마저 귀찮게 느껴진다. 여기서 증상이 심각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마음의 암세포 우울증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약 15%에 이른다고 한다.

우울증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서 발생하는데 이 물질은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자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육체의 암세포가 하루아침에 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도 많은 세월, 고통과 아픔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자살징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갑작스런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신분이 추락하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원인이 돼 유명 연예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길은 환자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항상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가족, 친구들과 사랑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쌓아 우울증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요, 나를 위해서 종교와 신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도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보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기구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목사)

15일까지 '2008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

세상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3회 2008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이 10~15일 까지 광주디자인센터 아트홀(본전시)과 조선대 백학미술관(특별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어'를 주제로한 본 전시와 '크리스천 청년작가전'과 '플로잉-양림동 프로젝트'를 주제한 특별전으로 나뉘

어 치러진다. 본전시에는 전국 기독교미술인과 각 지역 미술단체와 해외 거주 기독교 미술인 등 국내외 기독교미술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다.

특별전은 광주지역 기독교청년작가 그룹 '플로잉'이 복음을 전하고 불된 양림동 선교사동산의 의미를 재조명한 '양림동 프로젝트' 작품전 등으로 꾸며진다. /이문미기자 emlee@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2008 카공 113	최은영 목포시 산정동 1080-946	자기앞수표 번호:라741616172 금액:각금1,0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5일 발행인 및 지급인:농협중앙회 안주지점
2008 카공 114	김준호 목포시 상동 1117-4 뉴 성광오피스텔 404호	자기앞수표 번호:가740484006-13(8매) 금액:각금1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3일 발행인 및 지급인:광주은행상동출장소
2008 카공 115	한미약품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889-5	어음 번호:자7400061472 금액:각금20,000,000원 발행일:2008년 3월 25일 발행인:한미약품(주) 지급인:목포지점
2008 카공 116	김향선 의정부시 신곡1동 709-4 3층	자기앞수표 번호:비7472672764 금액:각금1,000,000원 발행일:2008년 7월 28일 발행인 및 지급인:북대우합병회지점
2008 카공 117	이기삼 목포시 산정동 1747 스카이파크 101-1107	자기앞수표 번호:00970112 금액:각금1,0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11일 발행인 및 지급인:광주은행안동지점
2008 카공 118	김연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임 성리 711	가계수표 번호:아7400452739 금액:5,000,000원 발행일:같은날 지급인:우 리은행 하양지점
2008 카공 119	윤옥연 전남 영암군 서호면 쌍 촌리 15	자기앞수표 번호:라747306720 금액:각금1,000,000원 발행일:2008년 8월 10일 발행인 및 지급인:월곡산농협합동출장소
2008 카공 120	김경림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립 아파트 403동 1105호	자기앞수표 번호:가7481637436-43(8매) 금액:각금1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24일 발행인 및 지급인:목포연산동 우체국
2008 카공 121	보평광업주식회사 광주 북구 무안동 887- 35 대표이사:윤기환	가계수표 번호:아7411064108 금액:각금3,000,000원 발행일:2008년 8월 28일 발행인:총출장 지 급인: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차티드 제일 은행 목포지점
2008 카공 122	정병국 전남 신안군 정산면 다 수리 622	자기앞수표 번호:가7488936573-87(15매) 금액:각금1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16일 발행인 및 지급인:정산농협출장소
2008 카공 123	강병대 목포시 신정동 공동산 신안아파트 103-1303	자기앞수표 번호:라741965861 금액:각금1,000,000원 발행일:2008년 9월 19일 발행인 및 지급인:수협중앙회 신안군수협 지점
2008 카공 124	김천국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 파트101-405	자기앞수표 번호:28091475-76 금액:각금100,000원 발행인 및 지급인:목 포 하당우체국

광고심의번호 제 080410-중-3171호
www.iljoong.co.kr

고질적인 '전립선염' '방광염' 한약으로 치료!

일중한의원

일중한의원(서울, 부산, 광주)은 만성전립선염과 방광염을 한약요법으로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점심시간: 12시 30분 ~ 1시 30분
-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전립선염 증상

- 소변을 자주 본다
- 소변을 보기위해 잠을 자주 깬다
- 소변이 가늘고 시원치 않다
- 조루나 발기부전
- 회음부, 고환, 하복부, 음경, 허리, 다리 등에 통증

■ 방광염 증상

- 소변을 자주 본다
- 소변을 보기위해 잠을 자주 깬다
- 소변보기가 힘들고 시원하지 않다
- 혈뇨나 농뇨가 나온다
- 하복부와 요도부분의 통증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2번지 VIP사우나 1층 예약전화 062)676-1075